2025 소리프론티어 1&2차 심사를 마치며

사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단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단체를 만날까?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단단해졌을까?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뻤습니다.

2025 소리프론티어는 올해 소리축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리넥스트>라는 음악마켓과 함께 진행합니다. <소리넥스트>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한 다양한 예술가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마켓입니다. 소리프론티어는 소리넥스트의 공모형 쇼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7월 4일, 우리는 단체들이 내어놓은 소개서와 영상, 음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월 12일은 1차에 선정된 8팀을 직접 만나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차례의 심사 모두 '성장 가능성', '시장 친화성', '예술성'이라는 세 가지 자를 들고 살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누가 감히 미래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변화무쌍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 시장 친화성을 논하며, 각기 다른 영혼의 음악에 예술의 우열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심사란 언제나 쉽지 않은 과정이며, 저희는 결국은 <소리넥스트>라는 광장에서 국내외 공연 관계자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 미래를 그려나가기 용이할 것이라 판단되는 단체를 제안하는 일 일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분히 심의위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겸허해지는 심사의 한계임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 심사에서 다양한 음악의 결들을 만났습니다. 오랜 전통의 숨결을 고스란히 전하는 팀부터, 전통을 자신만의 언어로 만들어 연주하는 이들, 그리고 전통을 소재 삼아 새로운 옷을 입히는 음악들까지 저희가 만난 음악팀의 다양함은 반가웠고, 한정된 팀을 선정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웠습니다. 앞서 '전통을 소재로 한'이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고 조금은 걱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밴드나 팝의 구조에 전통을 얹을 때 종종 전통은 특별한 소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체득한 전통을 현대적 맥락으로 녹여내 다양한 음악적 스펙

트럼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음악도 많았습니다. 어떤 음악은 그저 강렬한 락이고 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월드뮤직, 퓨전, 재즈 등 다양한 분류의 경계에서 그리고 청중들의 감각 속에서는 제자리를 잡으려는 음악들도 있었습니다. 전통의 쓰임에 대한 고민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음악의 장르에 대한 고민은 전통예술계에서 오랜시간 계속되었고, 이번 소리프론티어에서도 중요한 고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게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용기, 스스로의 정체성이라 믿었던 틀에서 벗어나 보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리랑도, 사랑가도, 뱃노래도 더 이상 지켜야 할 무거운 의무가 아니길 바랍니다. 스스로 발견한 아름다움이 본인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설명하고 공유될 수 있는 언어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품고 있는 전통이 예술가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필요한 좋은 안내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예인들이 노래와 연주를 통해 세상과 나누고자 했던 마음과 뜻을 오늘에 잘 살려 내는 것이 전통을 이어가는 핵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품고 노래하고 춤추는 팀들,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운드를 가진 팀들의 음악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을 깊게 살피고, 오랜 음악과 악기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나 그 소리를 공유하는 예술가들이 여기, 우리 곁에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걸음을 기대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4팀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저희의 선택은 불안합니다. 예술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올해 처음 열리는 마켓 <소리넥스트>라는 시장의 경향성을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팀들의 음악을 예술의 현장에서, 관객의 갈채 속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

천재현